

니트웨어의 소재특성에 따른 패턴개발 연구 - Shift One-Piece Dress를 중심으로 -

윤 해 준 · 송 미 령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패션프로덕션전공

패션의 다양화에 따른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류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한 레저·문화의 발달, 직장 여성의 사회 활동 증가, 신세대의 서구화된 체형조건으로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근래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는 미, 편안함, 실용성, 착용감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니트웨어의 활용도가 특히 높아지고 있다.

니트웨어 패턴에 가장 큰 변인의 요소가 되는 실의 종류와 조직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다양한 원사의 혼합과 조직들의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Data자료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실의 종류에 따른 조직의 물성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니트의 길이(wale)와 폭(course)의 변화량이 어떻게 다른가를 측정하여 이 변화량의 수치와 물성과의 관계를 통계처리 분석하여 회귀식을 얻어 니트웨어 패턴제작에 활용함으로써 최적(最適)한 패턴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니트의 특성인 신축성의 영향으로 형태 안정성이 적어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기 어려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기장의 길이가 처지는 동시에 폭의 변화가 줄어들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처지는 길이의 변화량은 소재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소재의 물성과 관련하여 볼 때, 무게와 신장회복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무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가슴둘레선과 허리둘레선의 간격이 허리둘레선과 엉덩이둘레선의 간격에서 보다 더 많았고, 그 밑으로는 늘어난 변화량이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줄어드는 폭의 변화량은 밀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밀도가 가장 높은 Span·나일론/Acrylic·Wool이 많았고, 각각의 기준선 중 가슴둘레선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엉덩이둘레선, 허리둘레선, Torso선, Hem선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체의 형태구조상 가슴부분의 영향으로 뒤판 보다는 앞판의 길이의 늘어난 분량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소재별 물성과 변화량과의 회귀식을 추정한 결과 설명변수(독립변수)로 의미가 있

는 것은 무게, 밀도, 신장회복률 등이 니트 소재 길이의 늘어짐과 폭의 줄어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상에서 나타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니트웨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길이와 폭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 변화는 소재의 풀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길이의 변화량에서 부위별로는 가슴둘레선과 허리둘레선 간격의 사이에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폭의 변화량에서는 소재의 밀도와 관계가 가장 밀접했으며 가슴둘레선에서 가장 변화가 많았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앞판과 뒷판의 차이를 비교했을 때 앞판이 더 많이 늘어졌다. 이를 회귀식으로 분석한 결과 무게, 밀도, 신장회복률 등이 변화량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소재별로 새로운 원피스 패턴을 CAD SYSTEM을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개발된 패턴으로 각각 니트 원피스를 제작하여 검증한 결과 형태 안정성을 이루고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실험용 재질을 평편 조직과 실의 종류를 5종으로 제한하였지만 이를 보다 다양한 조직으로 다루거나 혼합사의 사용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려되어 본 연구의 후속으로 남기고자 한다.